

향기로운 예물

십일조현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강은미, 강준식(김정연), 김경태, 김미희, 김영상, 김정연A(이선분), 김춘화, 김한나,
김현구(서재희), 박순자, 박혜진, 백근영(윤 속), 송령기(김현숙), 유효근(손명화),
윤병호(양영옥), 이미영, 이영순, 이향교, 장명환, 전순봉, 지상건(이복현), 채희춘(황영옥),
최상결(이미향), 최정희, 최정순, 허봉선, 현용건(이윤옥), 충정훈, 황성연(홍금옥).

선교현금

강준식(김정연), 김경엽, 김기백(배속자), 김순복, 김한나, 박복순, 박부웅, 박순자, 박춘자,
방석태, 백금신, 서재희, 손정아, 송다해, 윤 속, 윤병호(양영옥), 윤정호(유옥자), 이영희,
이미영, 이복현, 이소연, 이영순, 전순봉, 조옥자, 허봉선, 황성연, 황승광, 무명.

감사현금

이필례, 강봉석, 강희숙, 김병호(이영숙), 김성욱, 김수자, 김영진, 김정기, 김창구(이희순),
김희규, 박금업, 박부웅(최기남), 박영애, 박은숙, 박춘자, 신화순, 윤규리, 윤예진,
윤정호(유옥자), 이경자, 이기자, 이명원, 이미영, 이상규, 이선분, 이소연, 이익남, 이종문,
이춘희, 이향교, 임형문(박금옥), 전순봉, 전영선, 최효자, 황영옥, 소망3초원.

일천번제현금

이진우, 이필례, 김민성, 김철숙, 김춘화, 민옥희, 박은숙, 박희영, 배병찬, 서재희, 송명숙,
송백현, 신지현, 신현진, 심순옥, 이경자, 이노율, 이미영, 이설아, 이인숙, 주성탁, 최봉순,
최효자, 김민혁, 무명.

월정현금

맹관순, 박춘자, 신현진(이은경), 정복순.

주간 성경연구

* 주일 5장, 평일 3장씩 읽으세요. *

2014년 제 6주 : 민수기 13 ~ 35장

주 일	민수기 13 ~ 17장		
월요일	민수기 18 ~ 20장	목요일	민수기 27 ~ 29장
화요일	민수기 21 ~ 23장	금요일	민수기 30 ~ 32장
수요일	민수기 24 ~ 26장	토요일	민수기 33 ~ 35장

시무장로 이태일 정기성 윤조훈 방석태 이일로 천세력 윤병호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은퇴장로 오만식 윤창식 방현숙 장명원 이해석 정공식 이원가 문영원

교역자 부 목사 윤희진

전 도사 김성종 이필례

교육전도사 이송이 최유경

찬양대 지 위 자 활 빌 루 애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시온 · 에덴 : 최원지 엔 젤 : 이난수

반 주 자 오르간 심혜운
피아노 강민주 김상훈 김미희 유광희 이주하 정혜지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리스트 김안나 김혜진 고광훈 장명환 고승진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국 : 김정숙 이진트 김신숙
수리남 : 안석렬 이성욱 A X 국 : 김해월
A X 국 : 박동원 김명화 A X 국 : 이분우

협력선교사 태국 : 박영성 정세미 태국 박경화 이순연
멕시코 : 김종기 A M A 출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력단체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2014. 2. 2. 주일 예배 설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본문 : 고린도후서 6장 11-13절

설교 : 이진우 목사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변론했던 사도바울은 이제 스스로 넓어진 마음으로 화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13절) “마음을 넓히라.”는 호소는 이제 모든 오해와 불신과 의혹을 떨쳐 버리고 사랑으로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뜻으로 용납하고 포용하며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화합하라는 사도 바울의 간청한 요청인 것입니다. 그럼 사도바울은 왜 마음을 넓히라 요청하고 있습니까?

1. 마음은 인간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1) 마음은 사람에게 있어 육체적 생명이 머무는 곳이요, 도덕적 본성과 영적 생명이 머무는 곳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사람은 슬픔도 기쁨도, 모든 육체와 애정, 지각이나 이해함, 양심 그리고 믿음 또한 이 사람의 마음의 그릇에 담아 두는 것입니다.

2)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다스리며 지켜야 합니다.(잠 4:23, 신 4:9)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의 형제”에서 “신과 악마가 싸우고 있다. 그 전장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행복과 불행은 모두 마음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내 마음은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용서와 기쁨과 평안으로 넓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면 미움, 시기, 분쟁, 괴로움, 슬픔과 낙심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무기력하게 하고 부정한 생각을 주며 되는 일도 안 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3)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언제나 믿음으로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 충만한 은혜로 재워으로 부정한 것은 버리고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달려 있다는 말은 결국 우리 마음에 믿음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소망하고 바라고 굳건히 서 있다면 비록 지금의 환경과 모든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불리하고 안 될 것 같고 보이는 것이 다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넓히라 요청하고 있습니까?

2. 마음이 무한히 넓고 깊기 때문입니다.

1) V. 유고는 “바다보다 더 장대한 것은 하늘이요 하늘보다 더 장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 누구도 다 알아낼 수 없는 깊은 신비입니다.

2) 이러한 마음은 영적인 훈련과 은혜로 더욱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마음을 넓히라는 것인가? 사랑의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용서의 마음을 넓히고, 이해의 마음을 넓히고, 축복하는 마음을 넓혀라는 것입니다. 안 해보고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력했으나 안 됩니까? 그렇다면 잘못 훈련한 것입니다.

3)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건훈련으로 되어점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변해하는 것입니다.

3. 마음의 크기에 따라 능력과 사람의 가능성에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1) 하늘에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통사의 직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직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승진하듯 올라가는 직분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바로보고 마음을 크게 하여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2) 목동이었을 때 다윗은 그저 자신의 양 떼만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는 자신의 삼복들과 거느리는 군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온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그 마음에 품어 더 큰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그만큼이 막하고 어두워져서 무력해집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3) 성도는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내가 맡은 직분과 직책이 더 높아지고 종책일수록 더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나에게 그런 마음이 없는데 직분을 맡고 종책을 맡았습니까? 그 마음을 훈련하고 단련하여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성도는 사랑의 마음, 용납하며 나보다 날을 낮게 여기고 겸손함으로 그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없는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나를 대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이루어야 함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 마음을 넓게 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행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2014

No. 40 - 6

대한예수교장로회

성 현 교 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목표: 1. 진리 파수 2. 천국일꾼 양성 3. 민족 복음화 4. 세계 선교

동산의 생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 목사 이 진 우
Senior Pastor Yee, Jin Woo

● 152-09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3 마길 18(개봉동)

● 18 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 스 : 2689-1230

● 홈페이지 : www.sunghyeon.or.kr



2014. 2. 9.

